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제1746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3일 (음력 5월 8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土)	4(日)
구름조금	구름조금
18 / 30℃	18 / 29℃

News

- 고건 전 총리의 친위조직 ②
- 장애 산악인 김홍빈의 도전 ③

Jeollado ⑦

- 풍수 - 이의신과 윤고산

Entertainment

- 스타 가수 '외국어 열풍' ⑧

- 오동진의 '씨네 카페' ⑨

Books

- 창작의 산실 '작가의 방' ⑩
- 대한제국 황족들의 삶 ⑪

Wellbeing

- 식품 탐구 - 매실 ⑬

- 월드컵 G조 전력 분석 ⑲

■ 단편 '외계소녀' 국제영화제 출품 전남 보성고 오민지 양

'소녀 감독' 세계로 날다

오민지(18·보성고 3) 양은 요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지난 겨울 만들었던 10분짜리 단편영화 '외계소녀, 불시착하다'(이하 외계소녀)가 오는 7월13일부터 21일까지 뉴욕 맨하튼에서 열리는 '제29회 아시안아메리칸 국제영화제'(AAIFF)에서 상영되기 때문이다. AAIFF는 아시아 혈통을 지닌 세계 영화인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매년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영화제다. '외계소녀'는 오양의 첫 번째 작품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민지(오른쪽)양이 고향인 보성에서 국제영화제 출품작으로 선정된 '외계소녀, 불시착하다'를 촬영하고 있다.

인터넷 '외계어'소재 가족소외 담아

시나리오·촬영·편집까지 '척척'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보신 분들이 다들 재밌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아 홈비디오카메라로 장난삼아 가족들과 친구들을 찍곤 했었다는 오양. 지난해 겨울 인천시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CAMF)에서 지원받은 50만원의 제작비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시나리오를 살려냈다.

'외계소녀'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명 '외계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소녀가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초능력이 있는 외계인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다. 영화엔 오양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출연했다.

"제 여동생이 인터넷 소설을 읽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모티콘이나 은어 등 외계어라고 불리는 낯선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모습이 지구인이 아닌 외계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민지 양

오양은 이런 이질적인 느낌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 하지만 처음 만드는 영화라 제작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카메라 앵글 잡기도 어려웠고, 책과 인터넷을 참고해가며 촬영부터 편집, 영화제 출품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했다.

가장 먼저 영화가 상영됐던 서울국제영화제도 직접 국제영화제 측과 연락해 얻은 성과다. AAIFF 출품 역시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오양의 작품을 눈여겨본 영화제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양의 꿈은 연극영화과나 영화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다.

"영화는 영상·음악·의상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이모티콘=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 간단한 기호만으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문자 메시지나 채팅에서 자주 이용된다. - -(어이없는 표정), ㅠㅠ(우는 표정), ^-^(웃는 표정)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외계어=네티즌이 사용하는 컴퓨터 통신상의 언어. '즐'(원래는 즐겁다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 등 가벼운 변형에서부터 'ㅂHㅋ卜~【뗐쯰】ㅎHㅈ꺼다'(내가 때찌해줄거다) 등 한글을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외계어 번역기까지 나와 있다.

고건 대선행보에 정계개편 '급물살'

5·31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고건 전 총리. 정계개편과 맞물려 그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중 한 명인 고 건 전 총리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채비를 갖춤으로써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고 전 총리는 2일 "앞으로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성격의 연대모임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덕봉 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전 총리가 이처럼 사실상 정치결사체 성격의 중도 실용주의 연대모임을 추진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촉발된 정계개편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7월 중 발기인대회가 예정돼 있는 이 연대모임의 명칭으로는 '희망한국국민연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는 연대 모임이 정치적 결사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그것을 예단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 전 수석이 전했다.

고 전 총리는 연대 모임을 신당조직으로 연결시키는 정치권의 시각을 의식해 일단 비정치인 중심으로 연대모임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 전 총리는 향후 이 모임에 여야 각당의 정치인들이 가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5·31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고 전 총리의 이 같은 구상은 일단 그가 우리당과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권 외곽에서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수석은 "고 전 총리가 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연대모임 결성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실질 국민소득 1년만에 감소

올들어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월 말 발표된 속보치보다 소폭 하락해 올해 5% 성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며, 특히 설비투자가 5분기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연초 경기회복 기대감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0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전분기에 비해 0.6% 감소했다.

실질 GNI가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4분기 이후 1년만에 처음으로, 올들어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黨靑, 정책 수정 갈등 심화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후 경제정책과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놓고 여권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 우리당은 참패의 주요요인을 경제실정 등이 불러온 민심이반에 있다고 보고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와 수정방향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여당이 국민의 경제적 고통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고, 개혁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을뿐더러 주 지지층이었던 호남민심마저 헷갈리게 했다면서 계층·연령·지역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정부정책이 호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높아져 민심이반을 불러왔다고 보고 정책방향의 선회를 주문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정책기조의 유지를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일 선거결과를 보고받고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다 개혁성향 의원들도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 저항 등 경제정책만을 민심이반의 요인으로 드는 것은 지엽적인 분석이라며 정책방향 수정요구에 맞설 태세여서 여권내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